Mary Ward Week 2024

기도 주간 안내

머리말

- Mariana Ojeda 마리아나 오제다 CJ(아르헨티나 출신, 거주)
- Christa Parra 크리스타 파라 IBVM(미국 출신, 멕시코 거주)

노래와 마지막 묵상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가사와 곡)

- Deirdre Browne 디어드레 브라운 IBVM(호주 출신, 거주)

가사 동영상

- Susan Daily 수잔 데일리 IBVM(호주 출신, 거주)
- Loreto Mandeville Hall Toorak 로레토 맨더빌 홀 투락 학생 합창단

Day 1 *"이 여인은 누구인가?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 María López de Haro 마리아 로페즈 데 하로 IBVM(스페인 출신, 모로코 거주)
- Victoria Ripa Suberviola 빅토리아 리파 수베르비올라 CJ(")

Day 2 *"이 여인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 Aleta Dube 알레타 두베 CJ(짐바브웨 출신, 로마 거주)
- Basilisa Mmbone Materu 바실리사 멤본 마테루 IBVM(케냐 출신, 탄자니아 거주)

Day 3 *"이 여인은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Baiadamary Lyngkhoi 바이아다마리 링코이 IBVM(인도 출신, 남수단 거주)

Day 4 *"이 여인은 누구인가? 내 손 잡고 함께 걸어가세!"*

- Maurizio Borra 마우리치오 보라
  메리 워드 재단법인 대표, CJ 평신도(이탈리아 출신, 거주)
- Julia Charles 줄리아 찰스
  모리셔스 로레토 대학 교수, IBVM 평신도(모리셔스 출신, 거주)

Day 5 *"이 여인은 누구인가? 왜 그리도 멀리 가는가?"*

- Miroslava Santillán Dávila 미로슬라바 산틸란 다빌라 IBVM(페루 출신, 거주)
- Angela Budau 안젤라 부다우 CJ(루마니아 출신, 쿠바 거주)

Day 6 *"이 여인은 누구인가? 무엇이 그를 인도하는가?"*

- Cecilia Lee 이인숙 세실리아 CJ(한국 출신, 미얀마 거주)
- Tran Tuyet Trinh 트란 투엣 찐 IBVM(베트남 출신, 호주 거주)

Day 7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그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가?"*

- Selvi Adaikalam 셀비 아다이칼람 IBVM(호주 출신, 동티모르 거주)
- Catharina Yim 임수민 카타리나 CJ(한국 출신, 필리핀 거주)

Day 8 *"이 여인은 누구인가? 앞을 향해 자신의 목표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네"*

- Marica Bašić 마리카 바시치 CJ(크로아티아 출신, 독일 거주)
- Eileen Linehan 아일린 리네한 IBVM(아일랜드 출신, 거주)

머 리 말

안녕하세요! 저희는 IBVM 미국 지구 소속 멕시코계 미국인 크리스타 파라 수녀와 CJ 라틴 아메리카의 아멜인디아 관구 소속 아르헨티나인 마리아나 오제다 수녀입니다.

우리는 2022년 10월 만레사에서 열린 IBVM 총회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가족의 자매처럼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둘 다 스페인어를 알았기 때문에, 메리 워드 가족의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만장일치로 단일화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는 2022년 총회를 통해 사랑에 찬 성령의 현존과 움직임을 목격했으며, 성령께서는 이 과정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춤추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스텔라 그리뇰라 CJ(Estela Grignola) 수녀님과 나탈리 훌리한 IBVM(Natalie Houlihan) 수녀님이 2024년 메리 워드 주간 기획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Zoom과 WhatsApp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크리스타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마리아나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까지의 풍요로운 경험에서 출발하여, 전문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각지 출신 8쌍의 IBVM/CJ 수녀님들과 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우리의 삶과 사명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라는 노래의 질문으로, 서로 다른 상황과 문화, 언어 속에서 우리가 메리 워드의 카리스마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공유하자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임에서 영감을 받은 디어드레 브라운 수녀님이 "메리 워드, 우리를 인도하소서"를 작곡 했습니다. 그 수녀님이 작곡하신 노래와 마지막 묵상글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소명을 각자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자는 이 제안에 기꺼이 "예"라고 응답해 주신 메리 워드 가족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의 현실이 우리가 알고 있거나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상 통화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공유하는 9개 언어의 풍요로움이 우리 서로를 연결하고 이해하는 데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유연성, 각 나라 문화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경청하려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중 일부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일 묵상 기도 후, 패들렛을 통해 공감하는 내용을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이용하여 대화에 참여하고 글을 작성한 다음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https://padlet.com/mcloughlinrachel/mary-ward-booklet-2024-q7kotwveok6phqr8

링크를 클릭해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다음 페이지에서 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해 주신 수잔 데일리 수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AFNy4JrbRd2FNHaK2OgGuxS0aNTwzgZ6/view?usp=drivesdk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믿음으로 하느님, 메리 워드와 그리고 서로 함께 노래 부르며 춤을 춥시다!"

Lead us on, Mary Ward!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디어드레 브라운 IBVM

이 여인은 누구인가?
어디서 온 여인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가?
자신의 비밀을 간직한 채, 자신의 목표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전에 나서세!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되리니!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여인은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왜 그리도 멀리 가는가?
자신의 꿈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씩씩하고 힘차게 걸어가네

오,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세
이리 와서 나의 노래를 부르세!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여인은 누구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를 인도하는가?
그녀 영혼의 힘, 주님의 사랑
이것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이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전에 나서세!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되리니!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바로 이 여인이네
우리가 믿는 바를 옹호하기 위해 우리가 용감할 때
진리를 말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며,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네
오,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세
이리 와서 나의 노래를 부르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전에 나서세!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되리니!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우리를 인도하소서!

노래 동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AFNy4JrbRd2FNHaK2OgGuxS0aNTwzgZ6/view?usp=drivesdk

Day 1 23/1

이 여인은 누구인가?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 여인은 어릴 적부터 적대적인 환경에서 마음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는 그 비밀을 마음 안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덤불 속에서 "나는 내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는 영국의 비참한 상황을 느낀다"... 고 하시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에, 메리 워드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넜으며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메리는 여성을 위한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길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메리는 마음을 열고 선명한 비전과 부드러움 으로 가득 차 세상의 부르짖음에 다시 귀 기울였습니다 ...

우리는 어떤가요? 지난 25년 동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곳, IBVM이 존재하고 있는 이곳 모로코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세상을 메리 워드와 함께 두루 다니며... 빅토리아와 마리아는 현재 '하나됨' 의 은총을 - 미리 - 경험하고 사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여성이 중요하지 않은 다른 문화 - 가난, 체념, 실업, 문맹, 학대, 남성 우월주의가 지배적인 우리의 일상입니다. 문화에 대한 갈망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존엄성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하느님 왕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하느님께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상황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교육, 승진,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우리가 제공하는 읽기와 쓰기, 진급 수업에 참여합니다.

여성의 빈곤은 가정의 빈곤, 가족 해체... 그 결과로 고통받는 아이들, 건강 문제 등을 수반합니다. 취약한 가족... 빵, 건강, 다양한 욕구 갈증에 대한 동반. 거기에는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환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은 어떨까요? 그들의 언어를 몰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생기는 언어의 열매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의 언어로 살게 하십니다. 연민 어린 눈빛, 포옹, 애무, 말 이상의 경청,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비인간화 되고 불의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고통과 가난을 넘어 무력함과 불의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면서 기쁨과 평화의 싹을 틔우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무이하고 온화하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무슬림의 입에 하느님의 이름은 습관적인 것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말은 스페인어 "오잘라(Ojalá)" 또는 아랍어 "인샬라(Inshallah)"를 "바라건대"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함께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기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감각이 아주 놀랍고, 상호 존중과 감사는 필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노래는 메리 워드의 삶처럼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역동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니" 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함께 걸어가자는 초대에 메리 워드의 결단력과 에너지가 돋보입니다. 우리도 메리 워드처럼 성령의 힘과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

우리와 모로코의 세계, 이곳의 작은 교회, 그리고 우리가 파견된 사

For Reflection

현재 나의 사도직이 메리 워드의 신앙과 열정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평소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느 정도까지 '마음의 언어'가 되고 있는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패들렛**에 묵상 내용을 공유합시다.

https://padlet.com/mcloughlinrachel/mary-ward-booklet-2024-q7kotwveok6phqr8

Day 2 24/1

이 여인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저는 짐바브웨 출신으로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는 알레타 두베 수녀입니다. 해마다 메리 워드의 선종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메리 워드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요? 저는 메리 워드가 우리와, 우리가 봉사하는 짐바브웨 사람들 사이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메리 워드가 비록 짐바브웨에 발을 디딘 적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한 그의 열망은 계속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는 모두 메리 워드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유산과 열망, 봉사에 대한 헌신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창립자의 영향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합니다. 짐바브웨에서 우리 회원의 숫자는 적어도 우리가 하는 봉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사막에서 샘솟는 샘물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우리 클리닉 두 곳으로 몰려옵니다. 그들이 걸어오는 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어린이 집과 급식소, 학교는 메리 워드가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길 바라셨던 열망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일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메리 워드처럼 감사와 기쁨, 활력을 가지고 더 큰 열망과 집중력으로 인내하며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메리 워드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하나 됨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저는 케냐인으로 탄자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실리사 멤본 마테루 수녀입니다. 저는 교사직을 사랑합니다. 저는 메리 워드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탄자니아 미션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나는 하느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제가 하는 봉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 주민들, 지역사회는 제가 계속 봉사하는 데 큰 기쁨을 줍니다. 거의 800명에 이르는 로레토 여자중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로레토 수녀원 학교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미 정원이 꽉 찬 학교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탄자니아에 들려오는 메리 워드의 목소리와 그의 실제 현존이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메리 워드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이 되며, 저를 부르신 하느님께 계속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께 전념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에 찬 교사들과 학생들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이것이 바로 제가 학교를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입

For Reflection

메리 워드는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메리 워드는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내가(우리가) 사도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저 여성들은 누구지?*" 하고 궁금해하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패들렛**에 묵상 내용을 공유합시다.

https://padlet.com/mcloughlinrachel/mary-ward-booklet-2024-q7kotwveok6phqr8

Day 3 25/1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 여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세. 와서 내 노래를 부르세."

이 구절은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메리 워드와 함께 더 큰 과업과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결단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부드럽게 촉구합니다.

이 결심은 마치 예레미야 예언자가 경험했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불"(예레 20,9)과 같아서 끌 수가 없었습니다. 메리의 행동은 과감하고 대담했습니다. 메리는 무한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메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 닥칠 때면 그는 조용하고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러 다니면서 예수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친구 중의 친구'로서 끊임없이 그분과 의논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도전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랜 세월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디어드레 브라운 IBVM 수녀님은 작품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안전지대를 넘어 팔을 내뻗기 위해 도전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메리 워드가 실제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면, 그는 주변부로 손을 뻗어 그곳을 자신의 삶과 봉사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걸어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메리 워드는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게 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남수단에 있는 저와 우크라이나 예수수도회 공동체의 두 수녀님이 짝을 이루어 이 묵상글을 함께 썼습니다. 지구의 두 반구에 있는 두 나라가 평화의 희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수녀님들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두 지역에서는 인터넷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한데 모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현실은 여전히 원시적이고 거친 모습입니다. 인간 생명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 당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침묵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두 나라의 여성과 어린이들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과 메리 워드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부당한 관행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의 몫을 다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들의 고통 속에 하나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메리 워드의 용기를 따르는 '성령의 힘, 주님의 사랑...' 이 정의와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For Reflection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메리 워드' 노래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움직이라는 강력한 초대가 담겨 있다: 내가 메리 워드의 정신으로 영감을 받는다면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메리 워드처럼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무엇인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패들렛**에 묵상 내용을 공유합시다.

https://padlet.com/mcloughlinrachel/mary-ward-booklet-2024-q7kotwveok6phqr8

Day 4 26/1

이 여인은 누구인가? 내 손 잡고 함께 걸어가세!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완전한 여성"으로 정의한 메리 워드는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리는 육체적, 영적 여정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식별하며 *"자신의 꿈을 끝까지 추구"* 해 왔습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나와 함께 메리 워드는 오늘도 (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진리를 말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며,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용기로 나아갈 때 메리 워드는 나와 함께 걸어갑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 즉 더 이상 수도원 안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며 복음 전파와 교육에 힘썼던 시노드 방식을 메리 워드는 자신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평신도로, 남편이며 네 아이의 아버지이고 변호사인 나는 내 손을 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는 메리 워드와 함께 평범한 삶에서 *"선을 행하고 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고 지속적인 투쟁입니다. *"사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로마 7, 18-20)

저는 성사, 강렬한 영성 생활과 기도 생활이 필요하며, 식별과 양성, 모범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는 메리 워드의 수녀님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메리 워드는 평신도들에게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시는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각자에게 주신다"*(Alloc. F. 128 u. f. 47, Fridl II, 479권, 87항)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리 워드와 함께 걸으면서, 예수수도회와 동정성모회 수녀님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신도인 나도 내 손을 잡은 메리 워드와 함께 하나 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메리 워드의 초월적 도전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도 메리 워드는 평신도들을 자신이 설립한 수도회에 통합시키고,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 싸우리라 믿습니다. 오늘날의 학교도 중세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진리와 아름다움을 가르치며 다음 세대에 진리를 전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신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많은 학교를 설립할 것입니다.

마우리치오 보라

수녀원의 경계를 넘어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일하겠다는 심오한 소명으로 영감을 받은 메리 워드는 당대의 어린 소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메리 워드는 "때가 되면 여성들이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리셔스의 로레토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나의 내면에도 이런 확신이 살아 있습니다.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세", 메리 워드.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 소녀들과 함께 나의 미션을 완수합니다. 메리 워드의 강인한 정신력과 주님에 대한 사랑에 영감을 받아 나도 메리 워드처럼 씩씩하고 강인하게 걸어가며, 다양한 문화, 신념,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이 어린 소녀들에게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로레토 소녀들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자신이 믿는 바를 옹호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국경을 넘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메리 워드의 힘과 신앙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젊은 여성들을 위해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분투하는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로 인해 교직이 힘들어질 때, 일상의 도전이 나를 압도할 때, 나는 인생의 도전에 맞서 싸우는 이 여인을 떠올립니다.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메리 워드처럼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줄리아 찰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메리 워드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를 공유합니다. 메리 워드의 한 손은 소녀들을 향해 있고, 다른 한 손은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메리 워드는 소녀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흰 새는 성령을 상징하고, 푸른 하늘은 모리셔스의 하늘을, 나무는 모리셔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나타냅니다.

For Reflection

메리 워드가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세"* 라고 한 것은

내 삶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가?

일상 중에 나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 여정에서 누가 나를 격려하는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패들렛**에 묵상 내용을 공유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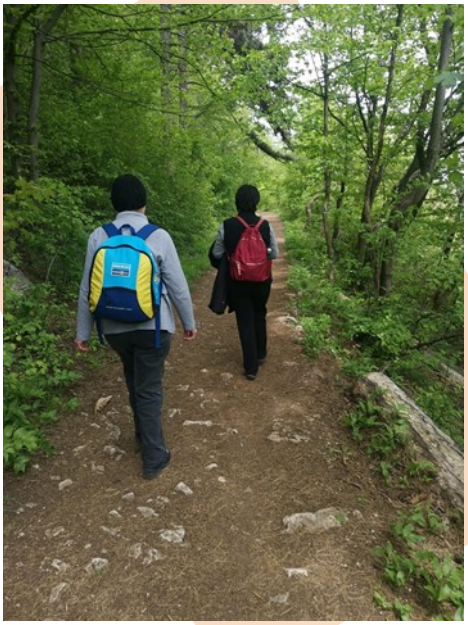
https://padlet.com/mcloughlinrachel/mary-ward-booklet-2024-q7kotwveok6phqr8

Day 5 27/1

이 여인은 누구인가? 왜 그리도 멀리 가는가?

주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다.

메리 워드의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쿠바의 루마니아 선교사 수녀, 삼수련자 사도직 경험 후에 루마니아에서 페루로 돌아온 선교사) 순회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덕행의 길은 중단을 허용하지 않으며,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후퇴한다"는 메리 워드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미지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떠나 지리적, 문화적인 장벽과 새로운 언어를 극복하라는 초대를 받아들였고, 대서양을 양방향으로 횡단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비전,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 등 새로움을 포용하기 위해 이러한 이동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반대편에서 같은 카리스마와 영성으로 살아가는 수녀님들을 발견했습니다. 메리 워드와 이냐시오 로욜라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여러 곳의 미션과 삶에 하느님의 영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우리 자신을 움직이기 위해 우리는 인성을 어루만지며 하느님과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프로젝트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인식하며, 생각과 감정과 정서를 책임지고, 우리를 능가하고 압도하는 단어로 이름을 붙이며 더듬거립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깊은 열망을 심어 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내외적인 여정의 길을 단계별로 보여주시게 합니다.

우리나라를 떠남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작은 하늘보다 세상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배우고, 다른 수녀님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지평선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동의 비전과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오래되고 익숙한 곳에서 뒤를 돌아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도록 초대받았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떠남을 통해 만남, 환영, 친숙함, 친교, 공동식탁, 환대, 생명 돌보기, 일상에서 기도하기, 단순하게 살기, 우리의 연약함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새로운 역동성 -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다른 수도회, 다른 기관과 조직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삶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며,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순회 여정으로 메리 워드를 부르신 하느님을 따르는 이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메리 워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전을 받아들이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네.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되리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네."* (메리 워드의 노래에서 발췌하여 복수형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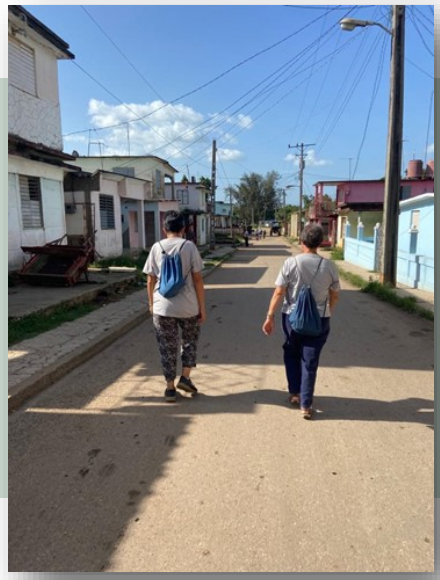
For Reflection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으며, 메리 워드 수도회 수녀로서 우리 모두는 움직이도록 초대받았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가? 자유롭고 미션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항을 나는 어디에서 느끼는가?

우리는 메리 워드 시복 기도를 바칠 때 "메리 워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당신의 영을 저희에게 주소서"라고 한다. 우리는 수도회를 위해 메리 워드 영의 어떤 측면을 청해야 하는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패들렛**에 묵상 내용을 공유합시다.

https://padlet.com/mcloughlinrachel/mary-ward-booklet-2024-q7kotwveok6phqr8



Day 6 28/1

이 여인은 누구인가? 무엇이 그를 인도하는가?

저는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미얀마 선교사의 삶은 저에게 큰 도전입니다. 정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공식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군부는 반정부 세력 중 상당수가 빈곤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매우 꺼려합니다. 빈민들에게 쌀과 기름을 나눠주거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때면 먼저 신변에 대한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그런 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평화롭게만 살아도 될까요? 제가 빈민 지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일을 할 때면, 메리 워드가 이곳에 사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현재 제 상황과 메리 워드의 상황을 비교하곤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라는 노래가 저에게 분명한 답입니다. "메리 워드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가?" 라는 노래를 들으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메리 워드의 꿈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큰 위로와 행복을 느낍니다. 또 노래는 이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 큰 도전과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메리 워드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되리니."*

이인숙 세실리아 CJ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호주로 이주한 저는 현재 학계에서 지식과 통찰력을 키우는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나자렛 마을에서의 예수님의 숨은 삶을 공유하고 공부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 조용히 살며 일하신 예수님은 위대함이 아니라 평범함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묵상하면서 저는 평범한 삶의 중요성과 하느님께서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도록 보내주신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메리 워드 노래를 들으면서, *"내 손 잡고 함께 걸어가세"* 라는 구절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구절은 낯선 이의 개념을 극복하라는 초대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질적인 개념을 넘어서 친구의 서클을 만들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동반 관계에서의 일치는 반드시 "물방울이 바다에 녹아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개성의 동시 구현을 의미합니다. 떼야르드 샤르댕은 "진정한 일치는 차별화 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서클에 합류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메리 워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저는 그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평화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으며, 제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평화야말로 평화의 복음을 가장 생생하고 강력하게 전파하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트란 투엣 찐 IBVM

For Reflection

나의 자리에서 무엇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가? 예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메리 워드가 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신 거룩한 공간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패들렛**에 묵상 내용을 공유합시다.

https://padlet.com/mcloughlinrachel/mary-ward-booklet-2024-q7kotwveok6phqr8

Day 7 29/1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그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가?

동티모르에서 메리 워드와 함께한 여정은 저에게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동티모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신념, 문화, 신비주의, 그들의 희망에서 메리 워드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는지 봅니다. 또한 많은 젊은 여성들의 마음에 메리 워드의 정신이 깊이 스며들어, 그들 역시 동티모르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과 영감을 주며 큰 힘이 됨을 목격하면서 큰 축복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동티모르 전통 의상인 카이바우크 (kaibauk) 왕관을 쓰고 있는 메리 워드 모습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수년간 호주에서 살다가 로레토 수녀원에 입회했고, 곧 동티모르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지난 7년간을 지냈습니다. 메리 워드의 정신이 많은 젊은 여성들, 특히 우리와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하며 정말 큰 축복이라 느낍니다.

동티모르의 산악 지대에서 성장한, 첫 번째 현지 회원인 로잘리나 벨로 수녀는 이 그림으로 메리 워드가 의미하는 자유, 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 삶의 방식이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희망합니다.

우리와 여정을 함께하는 젊은 여성들은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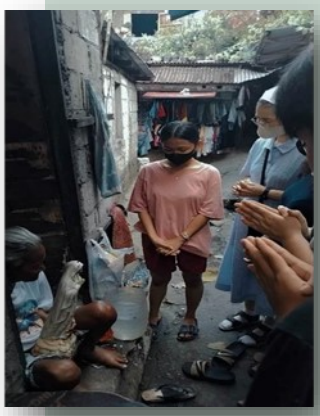
- *저는 메리 워드를 사랑합니다.*
- *메리 워드는 제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하느님과 대화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 *메리 워드는 자유, 정의, 자신감, 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메리 워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리더가 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메리 워드의 비전을 계속 이어가며 그의 은혜로운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길 바랍니다.

셀비 아다이칼라 IBVM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필리핀 칼루칸 교구의 미션 스테이션 중 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여러 나라 다문화 공동체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열심히 사도직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매우 빈곤한 지역이라는 말을 들을 때부터 제 마음은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는 자주 정전과 단수에 직면하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불편한 환경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신앙 생활과 관련된 전통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 워드의 생애를 묵상하던 중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메리는 생애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전능하신 하느님만 의지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능력이 저를 강하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되리라" 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리 워드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타인의 정원을 들여다보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기 위해 동화의 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칼루칸에서의 생활은 감사하게도 많은 은총으로 가득하며 "저는 축복받은 자"라고 느낍니다.

임수민 카타리나 CJ

For Reflection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발* 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메리 워드는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뭐라고 하시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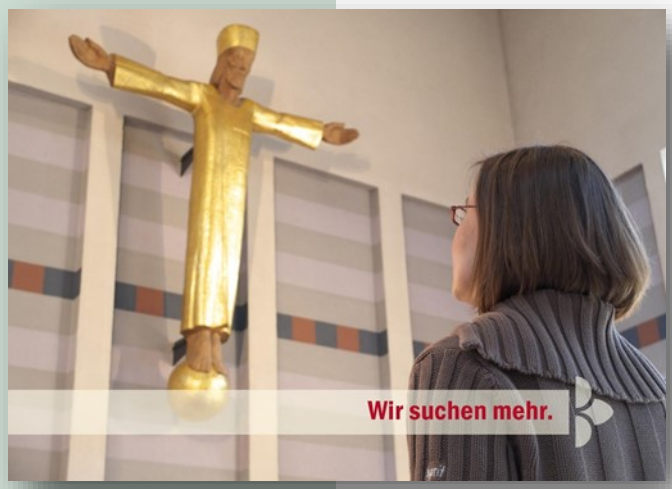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에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패들렛**에 묵상 내용을 공유합시다.

https://padlet.com/mcloughlinrachel/mary-ward-booklet-2024-q7kotwveok6phqr8

Day 8 30/1

이 여인은 누구인가?
앞을 향해 자신의 목표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네



Mary 메리 워드는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이타적인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지녔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생에서 바라는 모든 행복이었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메리의 유일한 목표는 개인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메리 워드는 이를 위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닥치더라도 사랑과 기쁨으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메리가 여성 수도자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은 어려움과 실망,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메리 워드는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직면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잘 견뎌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독일 카리타스 사회복지사로 난민 사업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혼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헌신적인 직원들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그들은 종종 우리 여성 수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성 수도자인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리 삶의 방식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종종 제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메리 워드는 평생을 하느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느님과 연관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메리 워드 여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느님과 연관시킵니다. 하느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며, 하느님을 통해 우리 삶이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메리 워드 수도회 수녀로서,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하느님께 둔다는 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이냐시오 영성이 이를 위한 최상의 토대라고 믿습니다.

제 고향인 아일랜드에서는, 점점 더 소수의 회원들만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지금, 창립자의 소중한 자질을 보여준 선배 회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하느님에 대한 친밀함과 자기 희생의 삶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국내외에서 수도회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

니다. 말년에 이른 이 놀라운 여성들은 "앞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후배 회원들과 리더십 팀의 사도적 투신을 위해 계속 기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대륙 출신의 동정성모회와 예수수도회 수녀님들로 구성된 국제 그룹과 함께 생활하며 활동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세상을 위해 메리 워드의 카리스마를 재해석하고 맥락화 하려는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우리 미래에 대한 큰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For Reflection

나의 시선은 앞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보이는가?

나는 앞을 내다볼 때 두려운가, 아니면 희망적인가?

오늘 나는 나와 우리 관구/지구, 전 세계 예수수도회와 동정성모회 가족을 향한 하느님의 초대를 어디에서 보는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패들렛**에 묵상 내용을 공유합시다.

https://padlet.com/mcloughlinrachel/mary-ward-booklet-2024-q7kotwveok6phqr8

마지막 묵상

디어드레 브라운 IBVM

우리는 사실상 8일간 함께 피정을 한 셈입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16~17세기의 이냐시오와 메리 워드는 21세기 남녀 수도자들이 그들의 담대한 꿈을 공유하고 실현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느님께 대한 경이로움은 끊이질 않습니다! 메리 워드 주간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하며, 자신의 통찰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묵상을 나눕니다. 또한 우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 모두를 신선하고도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해준 크리스타 수녀님과 마리아나 수녀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고 절친한 저의 친구인 토니 마타 IBVM 수녀님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호주 혈통의 강인하고 인상적인 레바논계 여성인 이 수녀님은 평생을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헌신하였습니다. 수녀님의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수녀님의 사랑에 넘치는 영향력이 전해졌습니다. 이 기고문을 써야 하는 바로 그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 8일 동안 모로코, 짐바브웨, 케냐, 탄자니아 등 제가 생각했던 모든 나라에서 토니 수녀님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방해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토니 수녀님이 세계 도처에서 우리 수녀님들과 똑같은 메리 워드의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 파킨슨병으로 인해 토니 수녀님의 활동적인 사도직은 계속 제한을 받았지만, 토니 수녀님은 사랑의 미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토니 수녀님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었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곁에 계셨으며, 메리 워드는 그가 사랑의 성소를 실천하는 길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많은 수녀님들이 더 이상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넘나들며 토니 수녀님처럼 활발하게 사도직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의 보폭은 보이지 않지만, 모로코 수녀님들처럼 매일 '마음의 언어'로 소통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경을 넘어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긍정하는 데에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면, 메리 워드 가족 모두의 미션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선물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여성이다'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 건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까지, 우리 CJ/IBVM은 모두 공동 여정, 즉 미션을 공유하는 사랑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노드 시대에 우리의 천막을 넓힌다면, 누가 우리이겠습니까?

이탈리아와 모리셔스의 마우리치오와 줄리아의 묵상글이 우리에게 실마리를 던져 줍니다. 우리는 친구, 수도자, 동료, 낯선 사람, 나이를 불문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메리 워드의 길을 함께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우리 모두입니다. 성령에 조율된 형제자매로서 우리는 자신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포용성의 모범을 보이고, 도전에 맞서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로잘리나가 그린 열린 손 스케치와 동티모르 문화 머리 장식을 한 메리 워드의 초상화에는 이러한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멜리에사 저지 조각의 팔과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뻗은 오른팔은 미션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에너지를, 손바닥에 팔찌 묵주를 반쯤 숨기고 몸에 바짝 붙인 왼팔과 손은 내면의 영적 삶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조국, 친구, 가족,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는 힘과 안정감을 떠나는 것, 안락함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떠나는 것, 익숙한 것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 - 묵상 내내 이런 이야기가 미묘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요성이나 자기 연민에 대한 속삭임은 없었습니다. 이 미션은 모두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육이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게 가져다주는 변화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서 오랜 시간 가르쳤습니다. 다른 이들은 극심한 빈곤과 폭력, 심지어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일하며 암울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모두가 보여준 용기와 희망이었습니다. '과업을 마치고 하느님께로 간다'는 메리 워드의 말씀은 매우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지치고 피곤합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 자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의 불을 계속 지핀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개기일식을 경험할 때는 온통 어둠뿐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감싸는 찬란한 빛은 어떻습니까?

불멸의 빛! 신성한 빛!

우리는 메리 워드와 이냐시오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공동사명의 꿈을 향해 함께 춤추며 살아가고 있지만,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션의 이유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 되는 메리 워드의 길을 걸어가며, 아름답고 힘든 세상에서 그 카리스마를 더 깊고 넓게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위대한 것은 우리가 춤추는 주님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춤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영광! 예수여, 아멘.

사명은 우리 존재의 핵심이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계속 사명에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회헌 Vol II 2 : 2.1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루카 12, 49

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패들렛**에 묵상 내용을 공유합시다.

https://padlet.com/mcloughlinrachel/mary-ward-booklet-2024-q7kotwveok6phqr8